

조약골 <아나키즘으로 떠나는 파란만장한 여행>

## 제 1강 아나키즘이란

### ◆1교시: 아나키즘

####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잠시 아나키즘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근본적인 것이 있고, 근본적인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아나키즘 사상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사람을 그릴 때, 머리, 몸통, 손, 발, 다리가 있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할 때, 사실 다 중요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나키즘인데, 다른 입장에서는 머리가 중요하다, 몸통이 중요하다, 팔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나키즘은 중심되는 것이 없어야한다고 하죠. 사람이라는 유기적인 것에 아나키즘을 설명하려면 다른 이론체계와 다르게 설명해야죠. 사람 하나로 보자면 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생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팔이 없다면, 머리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아나키즘은 기본적 사회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을 없애나가는 경향, 그런 운동방식을 아나키즘이라 부르죠.

현재 21세기 한국사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따져보면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방향이 나오겠죠. 기업은행 본사를 지나오는데, 한자로 여러 글자가 쓰여 있는데, 기업천자지대본이라고 쓰여있더라구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죠. 농업이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농업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생명체가 먹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죽게 되죠.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衣食住)에서 식(食)이 제일 필요하죠. 의(衣), 주(住)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식량의 자급이 아나키즘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 ▲아나키즘의 경향

아나키즘은 국가주의를 거부하는데, 그것이 아나키즘의 주된 흐름으로 이어져 왔죠. 그런 국가주의가 삶의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먹거리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가 먹거리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아나카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런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기업들이 주장하듯이, 기업이 마치 천하의 근본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

죠. 기업이 하는 일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가치들도 이 세상에서 중요시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이윤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공공연하게 기업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선언을 하는 세상이 왔어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상황이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현재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아나키시스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것인가. 옛날부터 그것을 고민해왔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거죠. 아나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협박이나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불온한 사상이었기 때문이죠. 아나키즘은 동양에서는 무정부주의라고 알려져 있고,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런 번역어가 좋은 번역어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일까요. 아나키즘의 핵심적 사상들을 따져본다면 왜 정부가 없어야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고, 아나키즘의 정수, 사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나의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 ▲아나키즘의 사상과 탄압

동아시아에 소개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즈음, 19, 20세기에 이 단어를 만든 사람들은 아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인식들, 테러리즘과 연관이 되고, 불온한 사상, 한국이나 동양에서 제대로 된 조명을 받은 적이 없었죠.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아나키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양인든 서양인든, 이런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역사적으로 잊혀지기도 했어요. 20세기 후반부터 다시 복원시키려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빛을 보게 만든 것은 전체 아나키 역사에서 극소수죠.

불온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탄압을 받았는데, 아나키즘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생활의 시대가 되었는데, 1970, 80대까지는 민중이라는 사람, 노동자, 농민, 빈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존조차 문제가 될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죠.

환경적인 것, 착취, 억압, 직접적인 탄압 이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아나키즘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떠들다가, 정부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죽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물론 지금 그런 시대가 변했느냐, 하면 변했다고도,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나키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존이라는 자체, 어떻게 이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삼자주의三自主義

아나키즘을 동아시아에서는 무정부주의로 썼고, 한자문화권에서요. 100년 가까이요. 한국, 일본,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아나키즘이라고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아나키즘 대신에, 무정부주의라고 쓰니까. 중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담아서 쓰죠. 무정부주의 대신 아나키즘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아나키즘이라는 것도 서양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좋은 단어선택은 아니죠.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체계, 활동양식을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다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좋은 한국어 번역어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정부주의 대신 삼자주의三自主義라는 쓰죠. 자(自), 스스로 자(自)가 세 개 있다는 거죠.

자유(自由), 가장 중요시 한 것이죠. 자연(自然)이라는 것이죠. 21세기 아나키즘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에코 아나키즘, 생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가는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질서가 더욱 강력해 지면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죠. 우리가 무한적으로 성장할 수, 발전할 수는 없죠. 지구라는 별도 사람과 같은 유기체라는 거죠.

맑스는 역사가 영원히 발전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끝이랄까를 상상할 필요성이 없었죠.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 사회라는 것이 무한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 인간도 태어나서 죽듯이 별도 태어나 죽게 됩니다.

1970년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광풍이랄까,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고 먹거리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예전처럼 무한하지 않고 끝이 오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된거죠.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착취해서는 안되겠구나 그러다가는 끔찍한 결과가 오겠구나 그러다가 에코아나키즘이 나타나게 된거죠.

마지막으로 자치(自治), 스스로 통치한다.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이 단어 안에 놓여져 있는 함축적의미를 살펴볼 때 강압적인 정부를 반대한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해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自由), 자연(自然), 자치(自治)를 묶어서 삼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강제적인 권력이 없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무강권주의, 지배가 없는 무지배주의라고 쓰는데, 통일은 안되어있다. 아나키즘이라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은데, 삼자주의 무강권, 무지배, 이런 것은 한자어죠.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를 쓰니까 통용이 잘 되겠지만 한국어로도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민머리주의

우리가 머리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머리가 없는 사회, 아나키적인 사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로 민머리주의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어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머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아나키즘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수직적 지배, 강제적 지배를 머리라고 본다면 머리가 없다면 민-, 민-은 머리가 없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가 민머리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쪽지지 않은 머리를 민머리라고 해요. 여러 가지 뜻을 담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여러 의미를 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친구들,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아나키즘으로 떠나는 여행은 주요 무대가 동아시아예요.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활동했던 많은 아나키스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3,1절 뉴스를 본 분들, 그때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무국적자들로 남아있다고 3,1절 이후, 한국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신채호 선생 경우,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했죠. 1936년에 돌아가셨고, 한국 정부는 1948년에 독립되었는데, 사실 국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데, 독립운동가들이 무국적자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신채호의 자식의 경우는 소송을 통해 국적을 얻었어요. 신채호 선생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거예요.

한국을 태동하게 만든 중요한 사람이 신채호와 많은 독립운동가들인데, 그들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거죠.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국국적을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신채호 선생같은 경우는 아주 열렬한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감옥에서 목숨을 잃으셨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둘러싼 논쟁을 본다면, 민족주의자들이 한국국적을 줘야한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는데, 아마 코웃음을 칠거 같다. 국적이라는 자체가 신채호선생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가능했죠. 일본이든, 중국이든.

## ◆2교시 : 아나키즘의 역사적 흐름

### ▲신채호 선생과 아나키즘



신채호 선생이 아나키스트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논쟁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분은 그럴 것이다. 신채호 선생의 경우, 조선의 역사에서 처음에 민족주의로 시작을 했죠. 그분의 사상적 궤적을 따라가다보면,

양반이어서 민족주의자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조선의 상황이 외세에 많이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빼앗길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민족주의를 혁명적 민족주의가 되신거죠. 독립, 자강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시기를 보냈죠.

특히 1910년 조선이 넘어가면서 신채호 선생의 경우 일본의 국민이 되는 걸 거부하고 중국, 만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한거죠. 거기서 국적을 버렸다고 볼 수 있는거죠. 1919까지는 혁명적 민족주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식민지로 전락한 국가의 독립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다른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거죠.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뭐냐, 1987년 커다란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일어났죠. 3,1운동 같은 것이 끼친 영향이 1987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혁명적 민족주의자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 영감의 원천은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 먼저 선각(先覺)한 사람들, 먼저 깨달은 사람들,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느끼고, 나라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을 느꼈던 사람들 중심의 독립운동이 1919까지 벌어졌죠.

3,1운동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힘이 있구나, 전국적으로 매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민중이라는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민중의 힘을 느낀 거죠.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신채호 경우 아나키스트가 되어갔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1910년대 20년대 사상경향을 보면 민족주의 경향, 사회주의 경향, 아나키스트들이 있었죠. 각자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했다. 식민지 조선의 해방, 제국주의 일본의 패퇴, 같은 목표를 두고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죠.

### ▲아나키즘과 민족주의, 사회주의와의 비교

민족주의 경우는 교육사업, 민중에 대한 교육, 미국이나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힘을 길러 제국주의 일본을 물리치는, 국제적으로 조선이 인정을 받는 거죠. 제국주의 지배가 잘못되어 독립국이 되는 방향을 모색을 했다면,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노동자 계급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투쟁을 하는 것을 중요시 하지만, 지도자가 지도하는 방식에서는 민족주의와 차이가 없었다.

아나키즘은 민중이 가지고 있는 힘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19세기 태동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회를 바꾸어 나갈 때 잘난 사람, 선각자, 지도자, 머리,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뭐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역사적 단계에서 이름들을 얻기는 하지만, 3.1운동에서는 한꺼번에 일어난, 그런 사람들, 평소에는 죽어지내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기 힘든, 혹자는 민중, 혹자는 시민, 저는 잠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다중(多衆)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갈망하고, 인위적 억압이라 것들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것에 맞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뿌리이다.

#### ▲1920년대 무정부주의자들

그런 점에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던 사람들, 조선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20세기 초반 아나키즘의 수용이 늦게 나타나는데, 역사적 상황이 있었지만,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 조선의 아나키스트들에게 감명을 줬던 것은 3.1운동이었죠. 이런 전국적으로 민중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혁명사업, 독립이었겠죠. 신채호, 이회영 선생들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와 인식을 하게 된거죠.

약간 변화하게 됩니다만 1920년대 조선에서는 활발한 아나키스트가 나타났어요. 신채호나,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박열, 그 당시 1910대부터 아나키스트로 일본에서 이름을 날리던 오스키 사카에(大杉榮), 러시아에서 와서 동아시아의 많은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던 예로센코 (Vasilli Yakovlevich Eroshenko, 1890~1952)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아나키즘의 유래

오늘은 방향을 돌려서 옛날 이야기부터 할게요. 루시 파슨스(Lucy Parsons)라는 사람, 헤이마켓 사건이 있었고, 메이데이라고 부르는게 뭔지, 뭔가요? 보통 노동절을 메이데이라고 하고,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이죠.

노동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 있는데, 5.1일이 중요한 날로 되어 있고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리죠. 한국에서도 기려왔어요.

해방 뒤 몇 년 뒤 행사를 열다가 남한에서 정부가 금지해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근로자로 나왔죠.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 박정희, 전두환의 개발이데올로기가 들어있죠. 열심히 일을 했죠. 근로자의 날도 만들어 졌는데,

메이테이가 국경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3월 8일 여성의 날이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나라가 꽤 있어요. 예전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었던 나라들, 1991년에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 나라들은 대부분 3월 8일 여성의 날이 국경일이어서 독립 후에도 국경일로 되어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고, 한국에서도 노동자의날, 여성의 날의 의미가 다시 살아났고요.

역사적 유래를 자료로 볼 수 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의 날이 있었구나, 4월 말이 되면 자료집이 나와요. 노동절의 유래가 나와요. 인터넷으로 교양자료집이 있는데, 찾아 보구요. 그 자료집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은 뭐냐면, 노동절 관련을 읽어봤을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8시간 노동시간을 외치면서 시카고에서 총 파업을 벌이면서 거리로 뛰어나와 행동을 했으면서 그들의 대부분이 ана키스트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ана키스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 출발은 비슷하고, 어떤 지점에는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 ана키스트 단어자체가 삭제되어 버린 거구요. 단순히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 ана키즘을 번역하는 것 중 하나, 자유사회주의, 자유로운 사회를 원한다라는 의미이죠. 또 하나 자유가 있는 사회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리버테리안 소셜리즘(Libertarian socialism),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리버테리안 소셜리즘과 ана키스트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 ◆3교시 : 리버테리안(Libertarian)

#### ▲리버테리안(Libertarian)의 정의



리버테리안(Libertarian)이라는 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예요. 리버테리안니즘,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단어들로 번역 되었는데, 자유의지주의, 자유해방주의, 절대자유주의 자유와 관련된 단어인데, 리버털리즘과는 다르다.

리버털하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자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에 대해 자유스러운가하면, 보통 개인의 자유, 제한된 자유를 리버털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체제의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유를 추구하죠.

국가체제, 자본주의체제, 살고 있는 것을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부당한 억압을 받는 것 같다고 할 때 자유를 외칠 때 리버털리즘이라고 하죠.

한국의 경우,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다. 재산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침해, 부동산매매하면서 돈 장난하고 싶은데 정부의 규제 때문에 못한다. 리버털리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인데,

리버테리안은 국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억압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이지만, 다른 자유주의죠. 예를 들면 징병제 경우, 반대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국가주위의 거대한 흐름으로 징병제, 군사주의 이런 게 제대로 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남성, 여성의 모두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죠.

반대하는 흐름은 21세기 초반인데 본격적인 리버테리안리즘, 반국가자본주의가 나타난 것은 최근의 현상이고, 제대로 된 리버털한 사람이다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반대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별이는 억압적인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침묵해왔죠.

아나키즘을 리버테리안리즘, 리버테리안소셜리즘과 동의어다하면서 진행되어왔는데, 그런



점에서 아나키즘도 사회주의의 한 가지 조류라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라고 할 경우 그것이 뭐냐,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아나키스트들 경우,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국가없는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 ▲국가주의와 먹거리

크로포트킨(Kropotkin, Peter) 이 주장을 했었던, 마을이 중심이 된 코뮌이 있을 수 있고, 간디도 크로포트킨의 맥락과 일치한다. 영국이 인도를 강제점령하고 나서 19세기 말, 강제로 면화사업을 비롯한, 산업혁명을 이룬 후 체제 유지위해 식민지를 만들고 면화와 같은 싼 작물을 세계에 비싼 값으로 팔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죠.

식민지 체제를 인도에게 요구한거구요. 이전에 유지되어오던 자급자족의 체제가 인도에서 무너지면서 간디가 그것을 보면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급자족의 체제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거죠.

자급자족의 체제가 없으면 우리는 국가에 종속될 수 밖에 없어요. 간디가 보기에 중요했던 거죠. 마을중심의 자립운동을 했던 것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잃어서는 안되겠다. 잃었다면 다시 세워야 겠다고 생각한거죠.

국가주의에서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니어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면 남이 자신이 먹고 살게 바랄 수 밖에 없게 되고, 국가 체제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통제할 때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죠.

식량자급율이 예전에 100퍼센트였다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한국이 식량자급율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할 경우에는 권력자, 자본가들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죠. 이윤을 얻을 수 없죠. 자본가들은 다른식으로 사회를 바꿔놔야지 돈을 얻을 수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다. 무역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현재도 배우고 있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인거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이죠. 자원을 수입을 하려면 우리도 밖으로 내놔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고급인력을 만들어 무역을 하건, 자동차를 만들건, 핸드폰을 만들어, 밀이든 곡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지배자들이 했던 생각이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었구요. 한국의 경우 전면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70년대 부터인데,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고, 현재는 기업이 세상의 뿌리가 되어버린 참담한 세상이 된거죠.

#### ▲자유무역협정과 생존권

어떻게 다시 역전시킬 것이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삼자주의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 자치(自治)의 가치를 다시 살려나가는 길 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지금처럼 자유 무역협정에 의존하고 있죠. FTA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밀, 곡물, 옥수수, 콩, 과일, 쌀까지 수입하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 배, 옷,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인데, 민중의 자치랄까로 볼 때는 위험한 체제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본적인 능력을 박탈한거죠.

곡물가격이 2배 올랐고, 여러 장거리 수송에 따른 문제가 생겼고, 지구온난화라는 것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장거리 수송을 통한 무역, 인류가 처해있는 문제, 빈곤,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아직은 권력자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

그들은 아직도 시장중심, 기업중심의 세상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ана키스트 입장에서 그런 세상은 지옥같은 세상이고, 기업의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억압장치가 있어야 하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국가가 맡는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정부가 자임하고 있죠.

아나키즘에서는 뿌리에서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국가주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돌아보는게 출발이 될거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의 영향은 제대로 된 도전, 논의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5. 6년 사이에 국가주의에 대한 토론이 있고,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와 국민, 노동자

여권을 새롭게 만드는데, 지문을 만드는데, 우리들을 범죄자로 보는거죠. 더욱 많은 정부들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죠.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죠. 여권을 생체정보를 넣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누가 영토안에서 테러,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우리의 지문이 들어가면 쉽게 확인 가능하니까요.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가속화되어 있고, 반대흐름이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메이데이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100년부터 8시간 노동제와 적당한 임금, 당시에는 10시간 이상 노동, 12시간, 14시간, 16시간 노동을 했었고, 한국의 경우 얼마 전까지 그런 노동을 했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리면서 잘못되었다, 고쳐져야한다고 분신을 한 것이 얼마 전이지만 아직도 그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죠.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그런 위치에 많이 처해있죠. 일요일도 없이 한 달 내내 월급이 50만원이라고 하고 있죠. 인종차별의 문제가 또한 들어가 있고요, 노동자들이 외쳤던 8시간 노동시간,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이 되어있지 않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루시 파슨스를 비롯한 미국의 ана키스트들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서 중요했던 것이 살인적으로 길었던 노동시간, 제대로 된 작업환경, 임금이 중요한 문제였죠. 그 당시 노동자들이 이것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